

## 한의학에 대한 국내 언론보도 경향 분석 : 2018년~2022년 뉴스 기사 비교

진나윤<sup>1)</sup> · 최영선<sup>1)</sup> · 임병목<sup>2)\*</sup>

<sup>1)</sup>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 한의무석사과정

<sup>2)</sup>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

### Comparative analysis of domestic news trends in Korean Medicine from 2018 to 2022

Nayoon Jin<sup>1)</sup>, Youngseon Choi<sup>1)</sup>, Byungmook Lim<sup>2)\*</sup>

<sup>1)</sup> Department of Korean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Korea

<sup>2)</sup> Division of Humanities and Social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Korea

#### Abstract

**Objectives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news articles related to Korean Medicine(KM) and compare trends in news reports from 2018 to 2022.

**Method :** News articles related to KM were collected through the BigKinds, the news bigdata service of the Korea Press Foundation. News reports from 1 January 2018 to 31 December 2022 were searched. 2,950 news articles out of a total of 12,497 met the inclusion criteria. First, quantitative changes in media coverage were analyzed by year, media outlet, and month. For qualitative analysis, two authors independently coded the content of news articles, discussed them until consensus, and consulted with a third researcher to classify them. In addition, keywords extracted by the BigKind's Topic Rank algorithm were compared and analyzed in each year.

**Results :** The number of news articles on KM decreased by 42% in 2022 compared to 2018. Over a five-year period, the *Naeil Shinmun* reported the most on KM among newspapers, while the *Hankyoreh* did the least. Among broadcasters, YTN reported the most and SBS did the least. When analyzing the reports by category, the most common was 'treatment', followed by 'prevention' and 'scientification'. As a result of extracting keywords with high weight and frequency, 'immunity' and 'immune system' ranked the first and second in 2018, while 'COVID 19' and 'medical law violation' did in 2022.

**Conclusion :** The decrease in media reports on KM during the COVID-19 epidemic period seems to be due to the limited role of KM in responding to infectious diseases, and efforts to expand the scope of KM can induce increased media reports and social interest.

**Key words :** Korean Medicine, Media, News Trend, BigKinds, Public Awareness

• 접수 : 2023년 6월 26일 • 수정접수 : 2023년 12월 2일 • 채택 : 2023년 12월 5일

\*교신저자 : 임병목, 경남 양산시 부산대학교 49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316호

전화 : 051-510-8453, 팩스 : 051-510-8446, 전자우편 : limb@pusan.ac.kr

## I. 서론

한의의료는 1987년 2월 한의 의료보험의 도입을 통해 국민들의 한의약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발판을 구축하였다<sup>1)</sup>. 이후 2003년 한의약육성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한의약의 과학화, 표준화,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정보, 인력, 시설 등의 인프라가 구축되었으며, 국민의 건강증진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한의의료 서비스의 질 제고와 발전을 꾀할 수 있게 되었다<sup>2)</sup>.

하지만, 한의약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지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학진흥원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방의료에 대한 인지도는 2017년에 일반국민의 34.9%가 ‘매우 잘 알고 있음’과 ‘약간 잘 알고 있음’으로 응답하였으나<sup>3)</sup>, 2020년에는 26.4%로 크게 감소하였고<sup>4)</sup> 2022년에는 전화 조사와 유사한 27.8%로 나타났다<sup>5)</sup>. 2022년 자료<sup>5)</sup>에서 연령대별 인지도는, 50대의 35.2%, 60대 이상의 34.7%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미래 세대인 29세 미만은 12.2%에 그쳤는데, 29세 미만의 인지도는 전화 조사 대비 2.3% 감소한 수치다.

한의약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정도는 대중 매체, 즉 언론의 보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2022년 한방의료 이용실태조사<sup>5)</sup>에서 한의의료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획득한 경로는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이 가장 많은 39.3%였고, 그 다음이 ‘방송매체(TV, 라디오 등)’로서 27.6%였다. 언론은 ‘제4의 권력’으로 불리며 정보의 사회적 배분과 정책 결정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언론은 자신들의 프레임(frame)에 맞춰 대중에게 특정 이슈 또는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여러 정보 중 일부 정보만을 부각하기도 하면서 시민들의 인식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한다<sup>6,7)</sup>. 이러한 언론의 기능 및 역할로 인하여 대중의 인식과 언론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고, 언론에서 다뤄질 수 있는 주제 중 하나인 ‘한의약’에 대한 국민 인식도 언론 보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간 의료계에서는 2020년 의사과업에 대한 언론 보도와 미디어 프레임을 분석한 연구<sup>8)</sup>, 국내외 언론의 의료관광 보도방식과 프레임을 비교한 연구<sup>9)</sup>, 의료복지

기사의 주요 특성과 프레임을 비교한 연구<sup>10)</sup>, 신문기사 키워드 분석을 통해 의사 및 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분석한 연구<sup>11)</sup> 등 다양한 의료 관련 주제로 언론 보도 분석이 이루어진 바 있다. 하지만 한의약에 대한 언론 보도의 내용과 경향성을 분석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으로서, 한의약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뜬 관련 의료정보를 분석한 연구<sup>12)</sup>, 한약 유해사례 보도에 대한 연구<sup>13)</sup>, 한방차 관련 보도를 분석한 연구<sup>14)</sup> 등이 있으나 한의약 보도 전반의 동향을 살피기에는 그 주제가 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주요 언론사들의 한의약 관련 뉴스 보도 경향을 분석하고, 향후 한의약에 대한 국민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는데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연구 대상 및 방법

### 1. 데이터 수집

본 연구는 ‘한의약’ 관련 뉴스 기사들을 수집하기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빅카인즈(www.bigkinds.or.kr) 뉴스 분석 서비스를 활용하였다. 검색어는 ‘한의학, 한방, 한의원, 한의치료, 매선, 부항, 침술, 한의약, 추나, 침약, 한약, 약침’으로 설정하였으며, 검색어 범위로는 기사 제목과 내용을 모두 포함하였다. 언론사는 전국일간지 11개(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와 방송사 5개(KBS, MBC, SBS, YTN, OBS)로 한정하였고, 한의약에 관한 최근 5년간의 보도 경향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사를 1년 단위로 각각 검색하여 뉴스 기사를 수집하였다.

### 2.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추출된 데이터를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선, 양적 분석을 위해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연도별, 언론사별, 월별 기사 보도량을 1년 단위로 각각 비교·분석하였다. 검색된 보도들에 대해 1단계로 반복되는 유사도 높은 ‘중복’ 기사, 인사/부고/동정/포토 등의 ‘예외’ 기사들을 빅카인즈 시스템의 필터 기능으로 배제하였고, 2단

제로 연구자가 사전에 설정한 8개의 제외 기준에 따라 관련성이 부족한 보도들을 제외하였다. 8개의 제외 기준은 ① 중복된 기사, ② 인사/부고/동정/포토 등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기사, ③ 동음이의어로 검색된 기사(예: ‘한방’에서 지냈다, ‘한방’에 보낼 수 있다 등), ④ 기사의 중심내용을 이루지 않고 검색어가 단순 언급된 기사, ⑤ 알립/게시판 등의 각종 단신 기사, ⑥ 광고성 기사, ⑦ MOU/발전기금/장학금 관련 기사, ⑧ 기사 본문을 확인할 수 없거나 검색어 노출이 확인되지 않는 기사 등이다.

질적 분석은 기사 내용에 따른 분류 작업과 빅카인즈 연관어 분석 서비스를 통한 키워드 분석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내용 분류 작업은 수집된 뉴스 기사의 제

목과 본문을 모두 확인하여 2명의 연구자가 사전에 함께 작성한 코딩 지침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행하였고, 의견 불일치 항목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논의하거나 제3연구자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각 연도의 보도 내용에서 키워드 추출은 가중치와 빈도수를 기준으로 연관성이 높은 상위 20개 키워드를 추출하고 각 연도의 키워드들을 비교·분석하였다. 빅카인즈 사용자 매뉴얼<sup>15)</sup>에 따르면, 키워드 추출은 기사 본문에서 형태소 분석을 한 결과 중 명사 상당어구(명사, 명사어구 등)를 추출한 것이며, 형태소 분석은 47개 형태소를 16개 태그로 통합·식별하여 명사에 해당하는 체언인 일반명사, 고유명사, 의존명사를 분석대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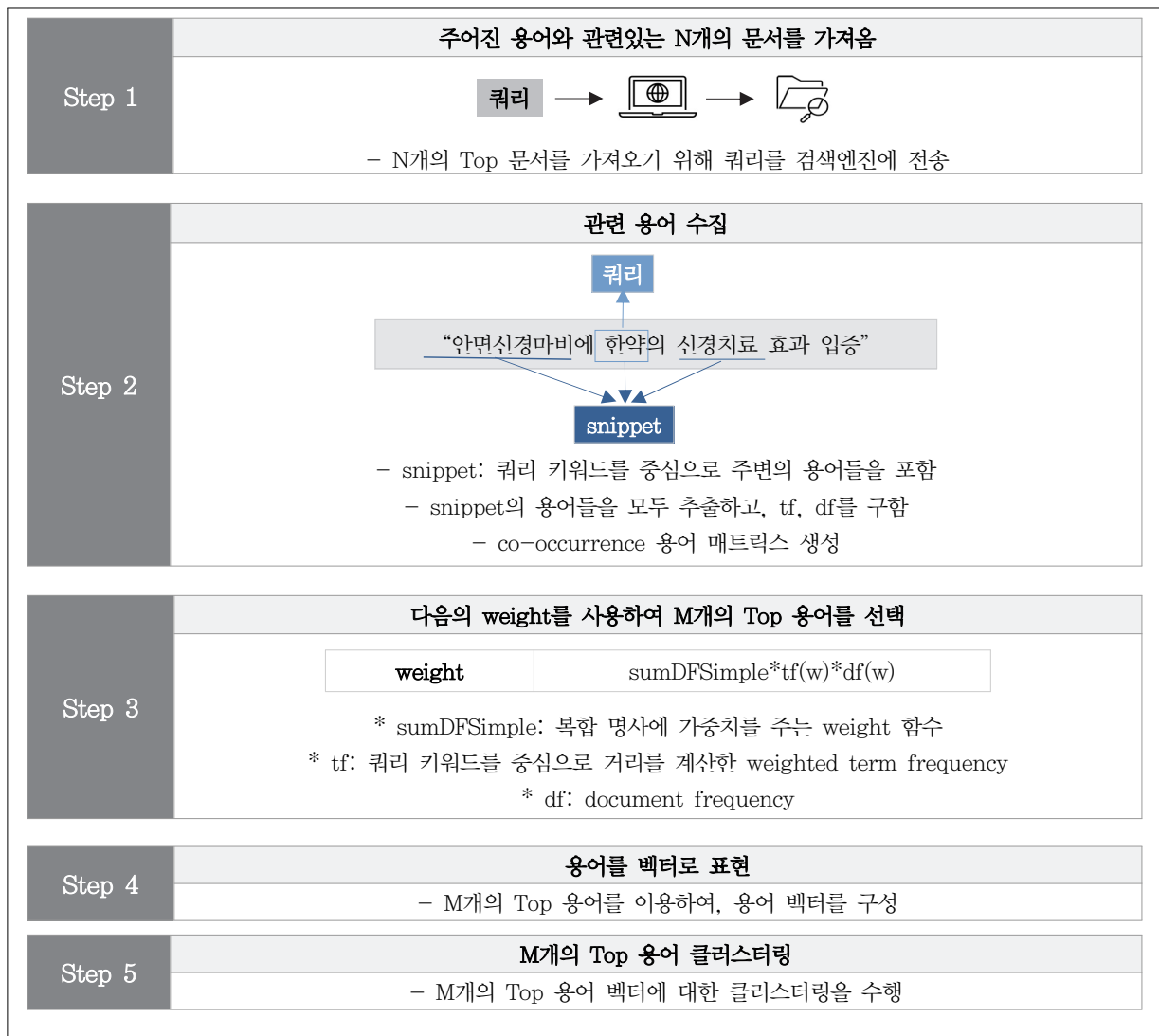


Figure 1. Algorithm of the TopicRank by BigKi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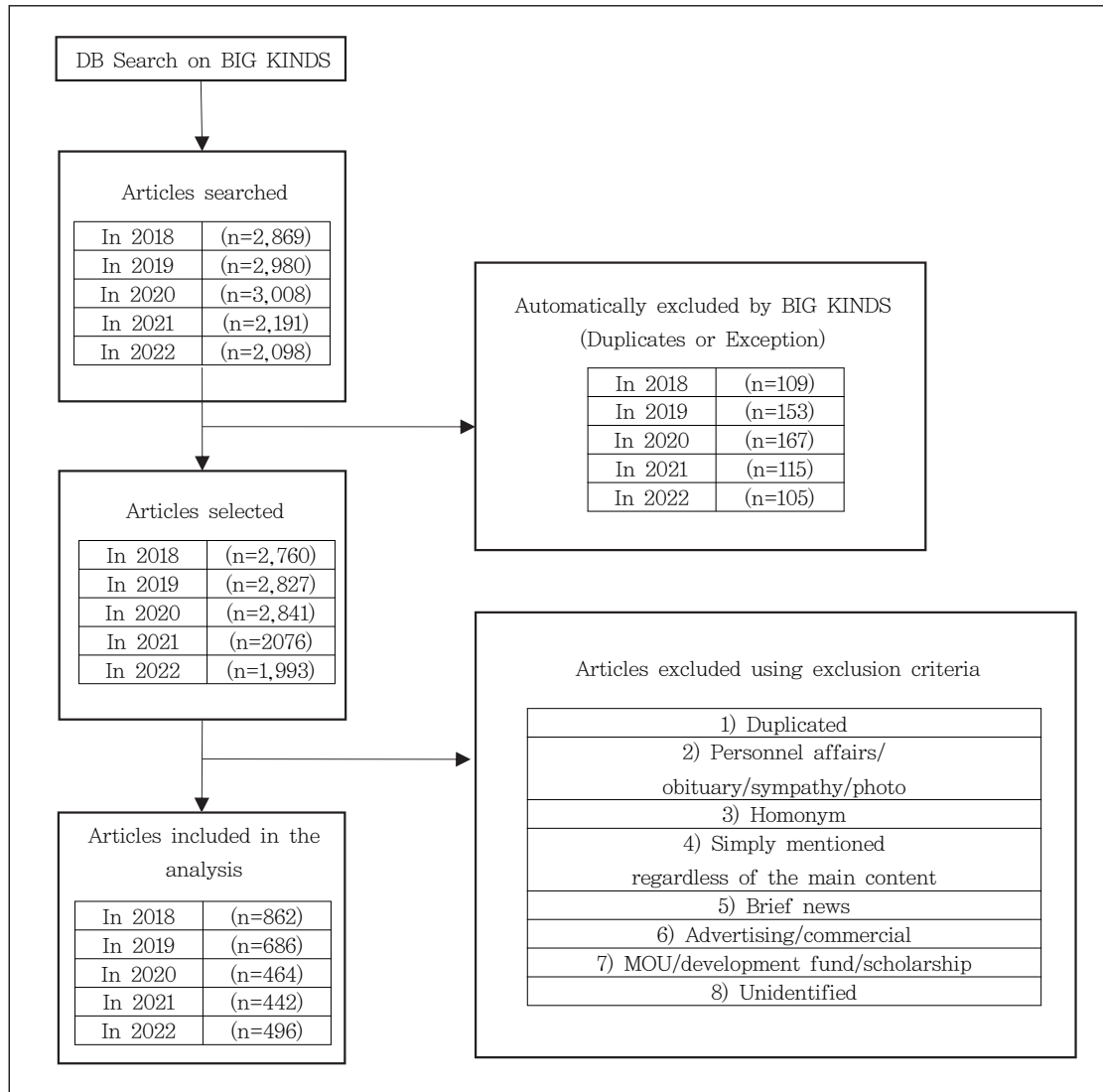


Figure 2. Flow chart for data selection

한다. 가중치는 분석 뉴스 내에서 토픽랭크 알고리즘으로 계산해서 나온 수치를 의미하며, 검색키워드와 연관성이 높을수록 값이 커지게 된다. 토픽랭크 알고리즘은 특히 등록된 기술로서, 검색한 결과에 대해 공식적 분석과 워드 클러스팅을 하여 동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시맨틱 네트워크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이다(Figure 1).

2018년 2,760건, 2019년 2,827건, 2020년 2,841건, 2021년 2,076건, 2022년 1,993건의 기사가 추출되었다. 이후 2명의 연구자가 사전에 함께 작성한 데이터 제외기준에 따라 5개년의 기사 총 12,497건 중 9,547건을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2018년 862건, 2019년 686건, 2020년 464건, 2021년 442건, 2022년 496건의 총 2,950건의 기사가 분석에 포함되었다(Figure 2).

### III. 연구결과

한의학 관련 언론 보도 검색 결과, 2018년 2,869건, 2019년 2,980건, 2020년 3,008건, 2021년 2,191건, 2022년 2,098건이 검색되었고, 이 중 '중복' 기사, 인사/부고/동정/포토 등의 '예외' 기사들을 필터링하여

#### 1. 연도별 뉴스 건수 비교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별 한의학 관련 총 기사 건수를 비교한 결과, 2018년에는 862건의 뉴스가 보도되었고 2021년까지 계속해서 감소 추이를 보였다.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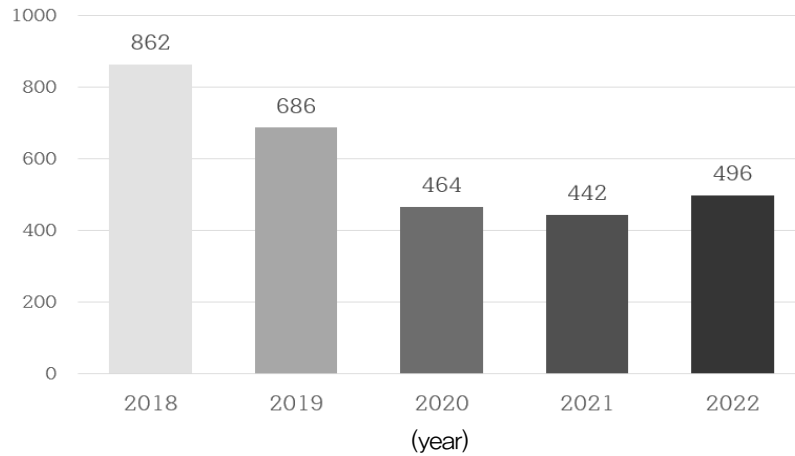


Figure 3. Number of news articles related to KM by year: 2018–2022

년에는 496건의 뉴스가 보도되면서 2021년보다 보도량이 소폭 증가하였지만, 2018년도에 비해 약 42% 감소했다(Figure 3).

## 2. 언론사별 뉴스 건수 비교

언론사를 크게 신문사와 방송사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Figure 4). 11개의 신문사에서 최근 5년 동안 보도한 한의약 관련 뉴스 건수는 총 2,701건이었으며, 5개의 주요 방송사의 보도량은 총 286건이었다.

먼저 11개의 신문사별 뉴스 기사의 수를 비교한 결과, 내일신문이 2018년 216건, 2019년 173건, 그리고 2021년 77건으로 보도량이 가장 많았고, 2020년에는 중앙일보가 96건, 2022년에는 세계일보가 94건으로 가장 많은 보도량을 차지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을 종합해봤을 때는 내일신문이 615건으로 전

체 신문사 보도량의 약 23%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은 한의약 관련 뉴스를 보도하였다. 내일신문 다음으로는 중앙일보가 418건을 보도하면서 약 15%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모든 해에서 가장 적은 기사를 보도한 신문사는 한겨레였다.

5개 주요 방송사들의 뉴스 기사의 수를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YTN이 각각 45건, 55건, 27건, 13건, 24건으로 가장 많은 한의약 관련 뉴스를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개년을 종합해본 결과, YTN의 뉴스 보도 건수는 총 164건으로 방송 뉴스 보도량 중 가장 큰 비중(약 57%)을 차지했다.

## 3. 월별 뉴스 빈도수 비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해당 연도별 동 기간 내에 한의약 관련 뉴스 건수를 월간 단위 변동 상황으로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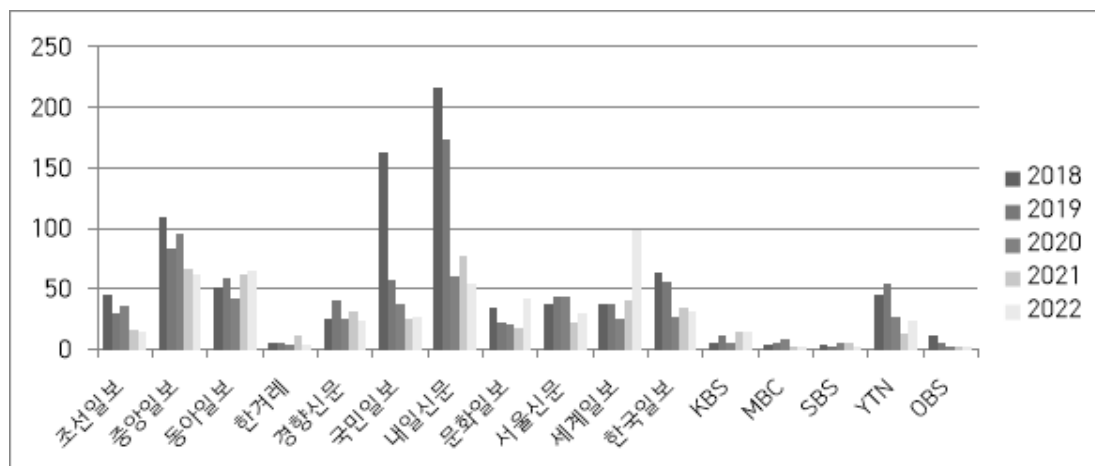


Figure 4. Number of news articles related to KM by media outlet: 2018–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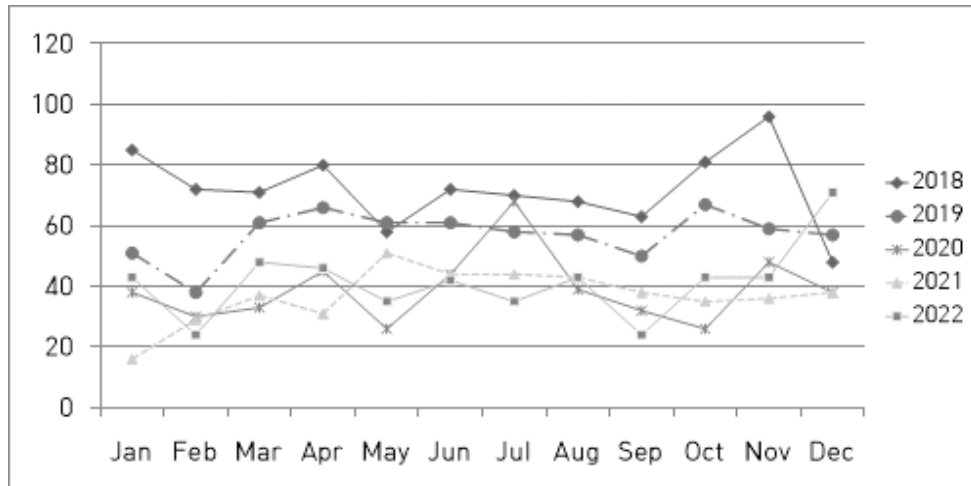


Figure 5. Number of news articles related to KM by month: 2018–2022

교하여 분석하였다(Figure 5). 5개년을 통틀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월별 추이는 특별히 나타나지 않았다. 2018년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보도량이 증가하다가 12월에 급감하였으나, 반면 2022년에는 연중 보도량에 큰 변화가 없다가 12월에 급증하는 형태를 보였다. 월별 보도량의 변폭이 가장 큰 해는 2020년으로서 가장 보도량이 적었던 5월에 26건이 보도되고 가장 보도량이 많은 7월에 68건이 보도되었다.

#### 4. 내용에 따른 기사 분류 및 분석

‘한의약’ 관련 기사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분석하여 각 보도들을 ‘예방’, ‘진단’, ‘치료’, ‘과학화’, ‘산업화’, ‘세계화’, ‘표준화’, ‘보험’, ‘사건/사고’, ‘의료이용현황 및 한의약 인식제고’, ‘교육’,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및 육성 정책’, ‘한약재안전성’, ‘직역갈등’, ‘의료기기 사용’, ‘학술’, ‘의료봉사 및 사회공헌’, ‘문화’ 등 총 18가지 카테고리리로 분류하였다. 그 중 ‘치료’, ‘과학화’, ‘산업화’, ‘보험’, ‘사건/사고’, ‘직역갈등’, ‘문화’에 대해서는 세부 분류 작업을 수행하였다(Table 1).

우선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사를 모두 종합해 봤을 때, 약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내용은 ‘치료’였고, ‘예방’과 ‘과학화’가 각각 약 11%, 9%로 그 뒤를 이었다. 다만 ‘치료’ 관련 기사는 2018년부터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여, 2022년에는 2018년에 비해 378건에서 79건으로 약 79.1%가 감소하였다. ‘치료’ 카테고리의 세부 분류 중에서는 882건 중에 ‘한의복합치료’이 513건, ‘한약(재)’가 30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 관련 기사 수는 2018년에 비해 2020년에 약 79%까지 감소하다가 2021년부터 다시 증가하였고, ‘과학화’는 전체 카테고리 중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치료’ 다음으로 ‘보험’과 ‘사건/사고’ 관련 기사의 비중이 가장 컸고, 2018년과 비교했을 때도 보도량이 크게 증가한 항목들이었다. 먼저, 2019년 ‘보험’ 관련 기사는 총 67건이었는데 그 중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기사는 12건이었으며, 나머지 55건은 ‘건강보험’을 다룬 기사였다. 2020년에는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사가 2019년 보도량의 2배인 24건이 보도되었다. ‘사건/사고’로 분류된 기사들은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의약품 불법제조판매’ 관련 기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험사기’ 관련 기사, ‘의료법 위반’ 관련 기사순이었다. ‘의료사고’에 대한 기사는 2020년에 특징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직역갈등’ 관련 보도는 2021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전체 118건의 80.5%인 95건이 한의사와 의사 간의 갈등에 대한 보도였고, 2022년에 집중된 나머지 기타 직역갈등 보도들은 한의사의 업무를 제한하는 정부와 한의사 간의 갈등에 대한 것들이었다.

#### 5. 키워드 분석

빅인즈의 토픽랭크 알고리즘에 기반 한 연관어 분석 서비스를 통해 각 연도별로 키워드를 추출하였다(Table 2).

Table 1. Classification by contents of the articles about Korean Medicine: 2018–2022 (unit: case, %)

		2018	2019	2020	2021	2022	Total
Prevention		119	62	25	47	79	332 (11.3)
Diagnosis		29	26	13	15	16	99 (3.4)
Treatment	Acupuncture/Moxibustion	10	4	2	0	4	20 (0.7)
	Herbal medicines	109	46	71	44	37	307 (10.4)
	Chuna manual therapy	4	8	1	5	1	19 (0.6)
	Korean Medicine complex treatment	244	131	48	57	33	513 (17.4)
	Korean Medicine–Western medicine Integrative treatment	11	2	5	0	4	22 (0.7)
	Sub–total	378	191	127	107	79	882 (29.9)
Scientification	Acupuncture/Moxibustion	10	10	9	11	12	52 (1.8)
	Herbal medicines	23	24	17	23	29	116 (3.9)
	Chuna manual therapy	1	0	0	0	4	5 (0.2)
	Korean Medicine complex treatment	2	11	9	2	10	34 (1.2)
	Korean Medicine–Western medicine Integrative treatment	1	0	1	0	3	5 (0.2)
	Cutting edge convergent technology	7	6	4	11	10	38 (1.3)
	Others	0	2	4	4	1	11 (0.4)
	Sub–total	44	53	44	51	69	261 (8.8)
Industrialization	Products	36	25	6	8	29	104 (3.5)
	Service	2	0	0	1	7	10 (0.3)
	Sub–total	38	25	6	9	36	114 (3.9)
Globalization		33	22	3	19	12	89 (3.0)
Standardization		3	5	3	2	6	19 (0.6)
Insurance	General insurance	3	12	24	36	10	85 (2.9)
	Health insurance	29	55	37	2	5	128 (4.3)
	Sub–total	32	67	61	38	15	213 (7.2)
Incident/ Accident	Medical law violation	4	3	7	7	8	29 (1.0)
	Illegal manufacturing and sales of pharmaceuticals	14	31	6	0	11	62 (2.1)
	false and exaggerated advertisement	1	2	11	0	6	20 (0.7)
	Insurance fraud	10	9	3	12	19	53 (1.8)
	Medical accident	9	0	14	2	0	25 (0.8)
	Others	2	22	12	23	0	59 (2.0)
	Sub–total	40	67	53	44	44	248 (8.4)
Medical utilization & Awareness		11	7	11	14	14	57 (1.9)
Education		2	5	3	2	1	13 (0.4)
Korean Medicine health promotion & Fostering policy		26	20	27	28	7	108 (3.7)
Herbal medicines safety		13	3	5	0	4	25 (0.8)
Interesting group conflict	Korean Medicine–Western medicine	11	24	34	4	22	95 (3.2)
	Others	1	1	0	3	18	23 (0.8)
	Sub–total	12	25	34	7	40	118 (4.0)
Medical device utilization		0	3	0	1	18	22 (0.7)
Academic conference		6	14	5	5	2	32 (1.1)
Medical service & Social contribution		9	24	14	13	5	65 (2.2)
Culture	Tourism/Event/Exhibition	58	39	24	27	46	194 (6.6)
	Books/Media/History	9	28	6	13	3	59 (2.0)
	Sub–total	67	67	30	40	49	253 (8.6)
Total		862	686	464	442	496	2,950 (100.0)

Table 2. Weight and Frequency of Keywords: 2018–2022

Year	Keyword (Top 10)	Weight	Frequency	Keyword (11th–20th)	Weight	Frequency
2018	면역력	100.0	633	부작용	18.5	167
	면역체계	33.7	146	건강보험	17.9	275
	보건복지부	31.2	104	도움말	16.8	30
	환자들	29.5	319	COPD	15.6	148
	생활습관	24.8	168	틱장애	15.1	139
	동의보감	24.4	204	난치성 피부질환	14.9	28
	사람들	23.5	181	지루성피부염	14.6	111
	컫물	21.7	196	혈액순환	14.4	187
	피부질환	20.9	170	전문가	12.6	111
	피부 재생력	20.2	42	아이들	12.4	164
2019	건강보험	45.6	493	환자들	13.4	217
	면역력	40.5	354	부작용	13.4	118
	보건복지부	31.3	113	미세먼지	13.3	118
	피부질환	23.1	110	사람들	12.8	109
	동의보감	18.1	153	가려움증	12.2	88
	면역체계	15.9	100	겨울철	12.1	73
	2-3인실	14.9	48	아이들	11.6	113
	피부 재생력	14.8	54	국민건강보험법	11.5	17
	지루성피부염	14.1	123	일상생활	11.3	75
	건선	13.4	182	식품의약품안전	11.0	36
2020	건강보험	40.3	383	침향	17.7	642
	코로나19	35.3	362	진료비	15.7	166
	보건복지부	24.1	93	월경통	15.1	70
	환자들	21.0	193	탕약	14.7	35
	의협	20.9	183	동의보감	14.4	119
	안면신경마비	20.3	74	대구	12.7	17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6	45	이기약	11.9	16
	시범사업	19.2	296	안전성	11.7	135
	자동차보험	18.6	135	중국	11.2	220
	2021	면역력	18.0	231	사람들	10.5
허리디스크		15.5	109	교통사고	8.9	89
환자들		15.2	160	자동차보험	8.5	127
전문의		14.5	51	동의보감	7.5	114
보험금		14.4	154	보건복지부	6.9	42
코로나 19		14.3	188	의료서비스	6.2	25
보험사		11.3	178	진단서	6.1	54
침향		11.1	316	진료비	6.0	129
면역력		10.6	143	아이들	5.9	73
우울증		9.8	77	과잉 진료	5.8	29
2022	경상환자	9.3	77	중국	5.6	80
	코로나 19	25.5	311	중국	11.4	85
	의료법 위반	24.4	87	의약품	10.9	126
	대법원	19.2	175	의료행위	10.3	118
	면역력	18.6	172	호흡기	9.2	203
	환자들	16.3	166	관절염	9.1	135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15.3	60	연구팀	8.9	223
	전문의	14.4	80	요추추간판탈출증	8.4	30
	보험금	14.1	113	보건복지부	8.2	54
	허리디스크	14.0	12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8.2	33
공진단	13.0	84	부작용	8.1	83	



먼저, 2018년도 한의약 관련 뉴스 기사들의 키워드 중에서는 ‘면역력’이 1위, ‘면역체계’가 2위를 차지하였다. 이 후, 키워드 ‘면역력’은 2022년까지 5년 동안 꾸준히 상위 20위 안에 들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건강보험’이 키워드 1위를 차지하였고, 2020년도부터는 ‘자동차보험’도 새롭게 순위권 안에 들면서 2021년까지 이어졌다. 특히 2021년에는 ‘보험금’, ‘보험사’, ‘교통사고’, ‘진단서’, ‘진료비’, ‘과잉 진료’와 같이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다수 상위권을 이루고 있었다. 2020년 키워드 2위를 차지한 ‘코로나19’는 2021년에 5위, 2022년에는 1위를 차지했다. ‘코로나19’가 상위 키워드로 등장함과 동시에 키워드 ‘중국’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하여 상위 키워드로 추출되었다.

한편, 매년 상위 20개 키워드 중 ‘피부질환’, ‘COPD’ 등 각종 질환에 관련된 용어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2018년과 2019년에는 주로 ‘난치성피부질환’, ‘지루성 피부염’, ‘건선’, ‘가려움증’ 등의 피부 관련 키워드들이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2020년에는 피부 관련 키워드가 상위권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고 ‘안면신경마비’, ‘월경통’의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했다. 그리고 2021년에는 ‘허리디스크’가 1위를 차지했고, 그 외 질환명으로 순위권 안에 든 키워드는 ‘우울증’이었다. 질환명이 키워드 1위를 차지한 것은 5개년 중 2021년이 유일했다. 이후 2022년에도 ‘허리디스크’는 9위로 상위권에 들었고, 그 외에 ‘관절염’, ‘요추추간판탈출증’도 등장했다.

그리고 2018년과 2019년에는 상위 키워드 20개에 질환명, 증상명, 예방 등 의료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키워드들이 다수를 차지했지만, 2020년부터는 ‘의협’, ‘시범사업’, ‘의료서비스’, ‘의료법 위반’, ‘대법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보험금’, ‘의료행위’ 등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상위권을 이루는 경향을 보였다.

#### IV.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유행을 전후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개년 간 한의약에 대한 언론 보도를 양적·질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한의약 관련 뉴스 트렌드의 변화와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주요 언론사 16개를 대상으로 연간 뉴스 수를 비교해보았을 때, 2018년에 비해 2020년~2022년의

보도 건수가 절반으로 감소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국적인 COVID-19 유행 국면에서 감염병의 방역과 대응에 보건의료측면의 사회적 관심이 더 집중됨에 따라 한의약에 대한 보도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COVID-19 유행이 본격화하기 전인 2019년의 보도건수가 2018년에 비해 약 20% 가량 감소한 것에 대해서는 일시적 감소인지, 한의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하향하는 추세에서 나타난 현상인지는 두 연도의 보도량 비교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언론사별 보도량을 보면 방송사 보도에 비해 신문사 보도가 많았는데 이것은 방송 보도의 특성상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보도할 수 있는 뉴스 건수 자체가 신문에 비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방송사 중 YTN의 보도량이 많은 것은 YTN이 뉴스 전문채널로서 다른 방송에 비해 압도적으로 뉴스 보도량이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신문사들의 한의약 관련 보도량은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내일신문과 국민일보가 높은 보도량을 보이다가 2020년 이후 다른 신문사 수준으로 급감하였고, 동아일보, 경향신문, 세계일보 등은 뚜렷한 증감의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신문사별로 보도량의 편차가 크다는 것은 한의약에 대한 보도가 보건의료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일관성 있게 영향 받기 보다 매체들의 불특정한 편집 방향 변화에 따라 보도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월별 보도량을 분석해 보면, COVID-19의 전면적 유행기 외에 2018년, 2019년, 2022년 10월의 보도량이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각 지역의 한의약 관련 축제들이 개최되는 시기에 축제와 행사를 홍보하는 보도가 활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많은 보도량을 보인 월은 2018년 11월로서, 96건의 한의약 관련 뉴스가 보도되었는데, 그해 11월 29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가 의결됨에 따라 관련 보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결과로 보인다. COVID-19 유행기였던 2020년 7월에도 보도량이 급등한 양상을 보였는데 이 역시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가 결정된 것에 대한 보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데 따른 것이다.

2022년에는 12월에 전월 대비 65%의 가장 큰 폭의 증가가 나타난 이유는 그해 12월 22일 한양방 직능 간에 참여하게 대립되는 이슈였던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폭발

적인 언론 보도가 이루어진 결과였다. 이들 사례는 한의계의 직역 확장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보일 경우, 이에 대한 언론 보도가 활발해지면서 한의약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기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한의약 관련 기사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2018년~2022년 전 기간에 걸쳐 대체적으로 ‘치료’와 ‘예방’ 관련 기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두 영역의 보도량이 모두 5개년간 감소하였으나 ‘예방’ 관련 내용은 2019년부터 급감 후 2021년부터 증가한데 비해 ‘치료’ 관련 보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COVID-19 유행 시기에 한의계가 감염병 치료에 대한 한의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키는데 실패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다른 영역들과 달리 ‘보험’영역의 보도 건수는 COVID-19 대유행 시 더 증가하였는데 2019년 건강보험 관련 보도는 ‘추나요법의 급여화’, ‘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실시’ 등에 대한 보도에 따른 것이었으며, 2020년의 손해보험 관련 보도들은 모두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과잉’을 다룬 내용이였다.

‘사건/사고’ 영역은 5개년간 일정 수준의 보도량을 유지하였는데 연도별 양상은 다르게 나타났다. 2018년, 2019년에는 ‘의약품 불법제조판매’ 관련 내용이 많았는데, ‘일반인이 한약재를 무허가 제조 또는 불법 수입 유통’하거나 ‘한의사가 한약에 스테로이드를 섞어 판매’, ‘한의사가 무허가 한방소화제를 판매’한 것 등에 대한 기사들이었다. 2021년부터는 ‘보험사기’ 관련 보도가 증가하였는데, 2021년에는 한의만을 타겟으로 하지 않은 일반 보험 사기와 부당청구에 대한 보도들이었다면, 2022년에는 한의원의 ‘실손보험 허위청구’와 같은 부정적 내용이 다수 보도되었다. 2020년에 ‘의료사고’에 대한 보도가 많았던 것은 ‘부항 세균감염으로 인한 사망’과 ‘봉침 쇼크로 인한 사망’ 사건으로 인한 것이었다.

‘직역갈등’ 관련한 보도는 한의사와 의사 간의 갈등에 대한 보도들로서, 2019년에는 ‘난임 치료’와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2020년에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2022년에는 ‘초음파기기 사용’, ‘IMS 시술 행위’, ‘COVID-19 신속항원 검사 권한’을 둘러싼 갈등들이 보도되는 양상을 보였다. 2022년의 기타 직역갈등 보도는 한의사의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권한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된 보도들로서, 한의사단체와 질병관리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에 벌어진 논쟁과 행정

소송에 대한 보도들이었다. ‘의료기기 사용’으로 분류된 기사들이 연간 5건 미만이었다가, 2022년에 18건으로 급증했는데, 이는 대법원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빅카인즈 연관어 분석을 통한 키워드 추출 결과를 보면, 분석에 있어서는 연도별로 양상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2018년 상위 20개 키워드를 살펴보면 ‘면역력’, ‘면역체계’가 상위에 있었고 그 외 ‘콧물’, ‘피부질환’, ‘COPD’, ‘턱장애’ 등 각종 질환명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었지만, 2019년부터는 질환이나 증상명이 감소하고 있으며, 당해에 나타난 주요한 사건이나 이슈와 관련된 키워드가 상위에 나타나고 있다. 2020년의 경우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건강보험’, ‘보건복지부’, ‘탕약’ 등의 키워드와 적용 질환인 ‘안면신경마비’와 ‘월경통’이 상위에 나타났다고 할 수 있으며, 2021년에는 자동차보험 환자와 실손 보험 관련한 문제가 보도되면서 ‘보험금’, ‘보험사’, ‘경상환자’,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과잉 진료’ 등의 키워드가 높은 비중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2022년에는 대법원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헌 판결과, 손실보험의 공진단 사기 청구 건, 신속항원검사 권한에 대한 갈등을 반영한 키워드들이 상위권을 이루고 있었다.

한의약 분야와 관련된 언론 보도 내용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과 비교하면, 강오석의 연구<sup>12)</sup>는 ‘뜸 관련 의료정보’, 김미경의 연구<sup>13)</sup>는 ‘한약의 유해사례’, 김소연의 연구<sup>14)</sup>는 ‘한방차’로 주제를 한정했다는 점에서 한의약 전반에 걸친 보도 경향을 분석한 본 연구와는 범주의 차이가 있었다. 또한, 강오석의 연구<sup>12)</sup>와 김소연의 연구<sup>14)</sup>에서는 데이터 수집 도구로 네이버(NAVER) 포털사이트를, 김미경의 연구<sup>13)</sup>에서는 네이버, 다음, 구글(Google) 등 세 포털사이트를 사용한 반면, 본 연구는 언론사로부터 수집한 뉴스에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보건의료 측면을 넘어 전 사회적 문제였던 COVID-19 유행 전후로 한의약 관련 언론 보도 양상을 조사하고 비교한 연구로서, 사회적 보건의료 이슈의 변동에 한의약에 대한 보도가 어떻게 영향 받는지를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다만, 보도량과 키워드의 양적 측면에 대한 분석에서 머물고, 한의약에 대한 긍정적 보도와 부정적 보도의

양상까지 분석하지는 못한 점, 전국일간지 11개와 주요 방송사 5개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추출하여 분석한 만큼 한의약에 대한 우리나라 언론 전체의 보도 경향을 보여준다고 하기 어려운 점, 마지막으로, 현재 온라인 중심의 언론 접촉 지형에서 언론 보도가 대중에게 인식 되기 위해서는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 관련 기사가 얼마나 노출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나 이 연구에서는 포털사이트의 한의약 관련 보도의 노출에 대한 부분을 다루지 못한 점 등은 이 연구의 제한점이라 하겠다. 향후, 분석대상을 넓혀 경제지, 지역일간지, 방송 뉴스까지 확장하고, 포털사이트의 노출 정도를 포함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V. 결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보도된 주요 언론사 16개의 '한의약' 관련 뉴스 기사들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COVID-19 유행 시기에 한의약에 대한 언론보도가 대폭 감소하였는데, 이는 감염병에 대한 방역과 환자 관리에 한의약의 역할이 제한됨에 따라 한의약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저하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 한의약에 대한 신문사들의 보도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일관성 있게 영향 받기 보다 매체들의 불특정한 편집 방향 변화에 따라 보도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3. 초음파 진단기기, 추나요법과 침약 급여화 등의 사례에서 보듯, 한의계의 영역 확대 추진은 언론 보도의 증가를 통한 사회적 관심도 제고를 촉진할 수 있다.
4. 한의약에 대한 언론 보도 감소가 감염병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인지, 사회적 관심 저하로 인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COVID-19 유행 종료 이후 시기의 언론 보도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 감사의 글

이 연구는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 참고문헌

1. Song KS. A study on the developmental process and social contribution of Oriental Medicine in Korea, Kyungsan University Doctoral degree dissertation, 1995.
2. Jeong HI, Kim KH, Lee JH, et al. A Review and Implication of Act on the Promotion of Korean Medicine and Pharmaceuticals, Journal of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2022;26(2):69-74.
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Development, 2017 Basic report of Korean Medicine Utilization Survey, 2018.
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Development, 2020 Basic report of Korean Medicine Utilization Survey, 2021.
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Development, 2022 Basic report of Korean Medicine Utilization Survey, 2023.
6. Brummans BHJM, Putnam LL, Gray B, et al. Making Sense of Intractable Multiparty Conflict: A Study of Framing in Four Environmental Disputes, Communication Monographs, 2008;75(1):25-51.
7. Semetko HA & Valkenburg PM. Framing European Politics: A Content Analysis of Press and Television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2000;50-2:93-109.
8. Kim NY & Jung MS. An Analysis of Media Coverage and Frame of the 2020 Doctors Strik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Internet], 2022 Jun;42(2):28-42. Available from: <https://doi.org/10.15709/HSWR.2022.42.2.28>
9. Kim KH, Song HJ, & Noh GY. Comparing the Media Frames of Medical Tourism, Kookmin

- Social Science Reviews. 2012;24(2):1-28.
10. Sohn SH, Lee GO, & Lee SY. Comparative Analysis of Characteristics and Frames of News Articles on Healthcare: Differences from Administration Changes and Media's Ideological Orientation.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2014;58(1):306-330.
  11. Jung H, Lee JW, & Lee GH. Analysis of Social Needs for Doctors and Medicine through a Keyword Analysis of Newspaper Articles (2016-2020).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2022;24(2):103-112.
  12. Kang OS, Park HJ, Kim SY, et al. Evaluation of Moxibustion-related Health Information on Korean Internet News Coverage. Journal of Acupuncture Research, 2009;26(2):189-199.
  13. Kim MK & Han CH. Herbal-drug-associated Adverse Events Reported in the Internet Newspaper Articles. Journal of Korean Medicine. 2015;36(1):33-44.
  14. Park SY, Lee SR, Chae SB, et al. Analysis of Newspaper Articles on Korean Style Medicinal Tea. Journal of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2017;21(2):95-103.
  15. Korea Press Foundation. BigKinds User Manual. 2017.